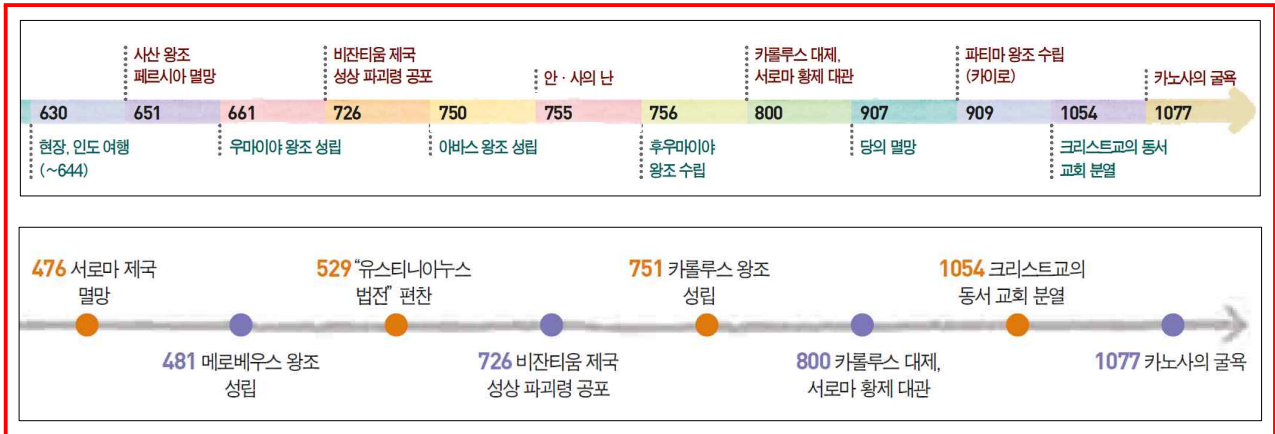


## 중세 서유럽 세계의 형성 - 게르만족의 이동



### [원시 게르만 사회와 게르만 족의 대이동]

#### 01. 원시 게르만 사회

- 인도·유럽 어족, ★발트 해 연안(원주지), 수렵·목축 및 농경에 종사
- 『갈리아전기』(카이사르), 『게르마니아』(타키투스)에 생활 모습 묘사
- 척박한 기후 조건으로 농경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에 토지를 공유해 공동 경작하는 공동체 유지
- ★종사 제도(Gefolgschaft, 從士 制度) 발달
- 3세기 이후 로마 제국에서 콜로누스(colonus)나 용병으로 활동

#### 02. 게르만 족의 이동[4 ~ 6C]

##### 1)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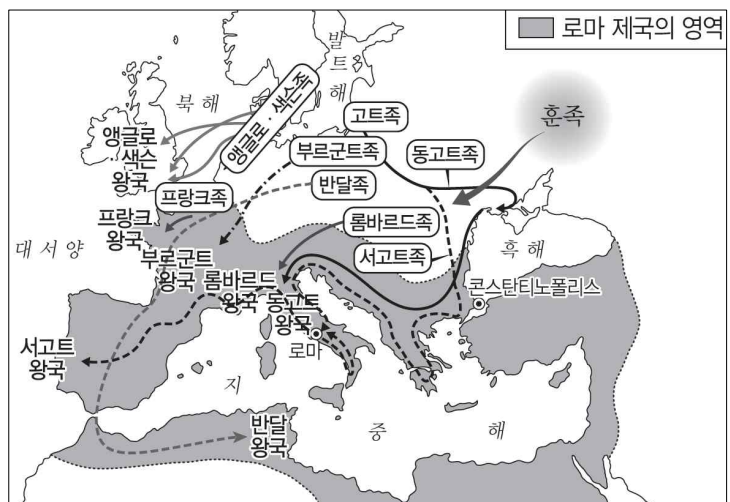
- 로마 제국의 국경 수비 약화
- 인구 증가로 인한 경작지 부족

##### 2) 경과

- ★4세기 후반 훈족의 흑해 연안 진출  
↳ 동고트 족 공격 → 서고트 족 위협
- 서고트 족의 이동  
: 게르만 족의 이동 시작

##### 3) 결과

- 서로마 제국 멸망(476년)  
: ★중세의 시작
- 게르만 왕국 성립  
: 로마·게르만 문화권 형성
- 북아프리카에 ★반달 왕국 성립(435 ~ 534)



## 중세 서유럽 세계의 형성 - 프랑크 왕국

[프랑크 왕국(Regnum Francorum)의 발전과 유럽 문명의 성립]

### 01. 프랑크 왕국의 성립

- 단거리 팽창 이동으로 게르만 족의 전통 유지
-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여 로마인과 융화
- 갈리아 지방 정착
- 비잔티움, 이슬람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건국

### 02. 프랑크 왕국의 발전

#### 1) 메로베우스(Meroveus) 왕조(481 ~ 751)

- 클로비스(재위 481 ~ 511)
  - : 왕조 개창, 갈리아 중부까지 영토 확장(486)
  - : ★로마 가톨릭 개종(496), 중세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
- 카롤루스 마르텔루스(680 ~ 741)
  - : 궁재 피핀 2세의 아들, 권력 투쟁 승리 → ★궁재로 실권 장악(717 ~ 741), 프린스의 호칭 획득
  - : ★투르·푸아티에 전투(732)에서 이슬람 군대 격퇴
    - ↳ ★로마 교황청의 제후 시도

#### 2) 카롤루스(Karulus) 왕조(751 ~ 843)

- ★피핀 3세(재위 751 ~ 768)
  - :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아들로 궁재 계승(741 ~ 751)
  - : 킬데리쿠스(Childeric, 힐데리히) 3세(재위 743 ~ 751)를 폐위하고 ★카롤루스 왕조 개창(751)
    - ↳ 교황 자카리아스(Zacharias) ~ 프랑크 왕국의 유대 강화(754)
    - ↳ 롬바르드(랑고바르드) 왕국을 정벌하여 ★라벤나 지방을 교황청에 기증(교황령의 기원, 756)
- ★카롤루스 마그누스[Carolus Magnus(대제), 재위 768 ~ 814]
  - : 수도 아헨(Aachen)
  - : 서로마 제국의 영토 회복, 롬바르드 왕국 정복, ★이베리아 반도 진출[론세스바예스 전투(779), 778 ~ 802], 동유럽의 작센 족 정복(★정복지에 교회 건설 → 가톨릭교로 개종)
  - : 교황으로부터 ★서로마 황제 대관(800), 아우구스투스(Augustus)의 칭호
  - : 통치 제도, 군사 제도 정비, 중앙 집권화 시도(백·공), 순찰사의 지방 파견
  - : 비잔티움 황제를 대신해 로마 교회의 새로운 보호자 역할

#### 3) ★카롤루스 르네상스(Carolus Renaissance)

-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문예 부흥 노력
- ★궁정 학교 설립, 학자 우대 정책[앨퀸(Alcuin)], 라틴어 문법과 논리학 교육
- 수도원 중심의 학문과 고전 연구 후원
- ★중세 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[로마 문화 + 크리스티교 + 게르만 문화]

#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- 노르만족의 이동

## [프랑크 왕국의 분열]

### 01.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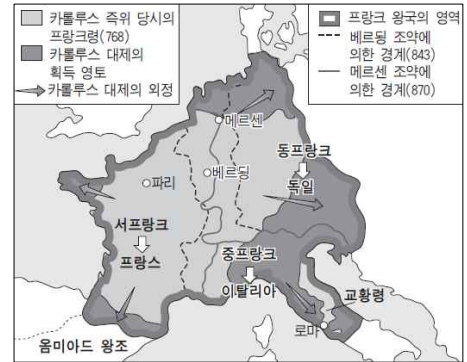
- 카롤루스 마그누스 사망(814)
  - ↳ 고유의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발생
- 왕권 약화, 지방분권화 경향 출현

### 02. 결과

#### ◎ 베르딩 조약

카롤루스 마그누스 사후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에 힘입어 프랑크 왕국이 후계자들 간의 다툼으로 혼란을 겪다가 동프랑크, 서프랑크, 중프랑크로 나뉘게 된 조약이다.

- 베르딩 조약(843)
  - : 중 프랑크, 서 프랑크, 동 프랑크 왕국 성립
- 메르센(메이르션) 조약(870)
  - : 이탈리아(중 프랑크), 독일(동 프랑크), 프랑스(서 프랑크)의 기원



<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분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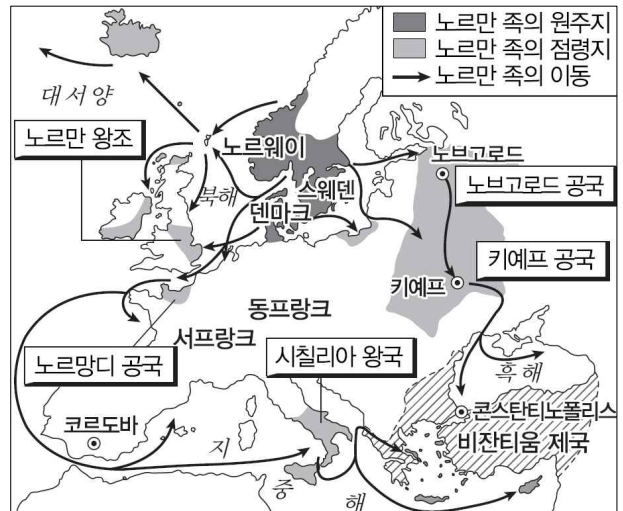
## [노르만 족의 이동]

### 01. 원주지(原住地)

- ★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
- ★9세기 말부터 유럽의 해안과 내륙으로 이동

### 02. 왕국 건설

- 프랑스 침입
  - : ★노르망디 공국(Duché de Normandie, 911)
    - ↳ 윌리엄 공(재위 1066 ~ 1087), 잉글랜드 정복 → ★노르만 왕조 개창(1066 ~ 1154)
- 지중해 진출
  - : 나폴리 왕국, 시칠리아 왕국 건설
- 러시아 진출
  - : ★노브고로드 공국(862 ~ 1136 ~ 1478), 키예프 공국(880 ~ 1283) 건설
- 원주지
  - : 스웨덴, 덴마크, 노르웨이 등 건설



<노르만 족의 이동>

### 03. 결과

- ★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

# 봉건적 정치 제도

## [봉건 사회의 성립]

### 01. 배경

- 9 ~ 10세기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중앙 집권적 정부의 부재
- 노르만족, 마자르족, 이슬람 세력 등의 침입으로 직업적 전사 계급(기사)의 성장
- 새로운 사회 질서, 제도의 필요성 대두

#### ⊙ 은대지제

7~11세기 프랑크 왕국에서 국왕, 대귀족 등이 충성과 봉사, 정치·군사적 결속을 위해 관대한 조건으로 관리나 소귀족에게 땅을 빌려준 제도이다. 고대 로마에서는 3세기 이후 황제가 국경을 방비한 게르만인에게 내려 준 토지를 일컬었다.

### 02. 형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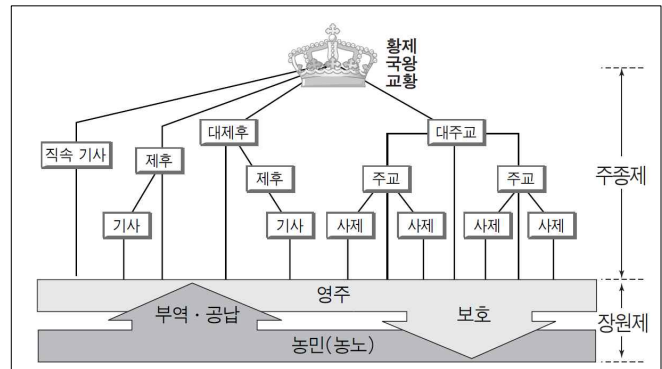
<기사 서임식>

- 9 ~ 11세기 형성
- ★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
- 종사 제도(게르만) + 은대지제
- 유력자를 찾아 충성 맹세
- : 외적의 침입, 기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는 과정에서 형성
- 영주들은 대규모 ★봉신(封臣, vassal)들로 구성된 전투 집단 조직
- : 기사도 집단으로 변화

### 03. 구조

#### 1) 주종제(主從制, 정치)

- ★주군 ~ 가신의 쌍무 계약적 주종 관계
- : 주군의 봉토(封土) 수여
- : 봉신(가신)의 충성 서약과 군사적 봉사
- : 의무 불이행 시 파기 가능, 계약 관계 세습
- 영주(봉신·가신)의 ★불입권(Immunity)
- : 국왕, 주군의 간섭 없이 영지(장원) 내의 재판권과 징세권 행사



#### 2) 장원제(莊園制)

- 영주[성(城), 싸우는 자] + 농노[오두막, 일하는 자] + 성직자[교회당, 기도하는 자]
- 영주 직영지, 농민 보유지(삼포제 경작), 목초지
- ★개방 경지제도(Open Field System)

#### 3) 농노에 대한 경제 외적 강제(Non-economic compulsion)

-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
- : 영주의 직영지 경작
- : 부역과 공납의 의무 부담, ★군사적 의무 無
- 거주 이전의 자유 無, 결혼과 재산 소유 가능(결혼세·상속세)
- 영주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



서(西) 프랑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파리의 백작 위그 카페를 왕으로 선출하여 카페 왕조 시작(★987 ~ 1328)</li> <li>왕권이 미약하여 지방 분권화 경향 → 제후들의 세력 강대</li> </ul>
동(東) 프랑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<b>오토 1세(재위 936 ~ 973)</b></li> <li>: 마자르 족(<b>레히펠트 전투</b>, 955년)과 슬라브 족의 침입 저지</li> <li>: 이탈리아 내란 진압(교황 지원)</li> <li>: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(962), ★<b>신성 로마 제국</b>의 기원(962 ~ 1806)</li> </ul>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헤이스팅스 전투(1066)에서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 공(기욤 2세)이 잉글랜드 정복</li> <li>노르만 왕조(1066 ~ 1154) 개창</li> <li>: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 수립</li> <li>: 슬츠베리 서약(1086, 모든 봉신의 주군 자임), 둠즈데이 북(1086, 토지 대장)</li> </ul>

▶ **둠즈데이북(Domesday Book)** ◀

노르만 왕조를 개창한 윌리엄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지 대장인 『둠즈데이북』에 기록하였다. 『둠즈데이북』에는 각 주별로 정복 전과 조사 당시의 영주 이름 및 직할지 면적, 쟁기의 수, 부자유민 노동자의 수, 자유농민의 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.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국왕의 권력이 전국 곳곳에 미칠 수 있었다.



## 개념 Check

- ①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결국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( )에 의해 멸망하였다.
- ② 4세기 후반 훈족의 이동은 서고트족을 비롯한 ( )족의 이동을 초래하였다.
- ③ ( )은 투르·푸아티에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군대를 격퇴하였다.
- ④ 교황의 지지 속에 피핀은 ( ) 왕조를 개창하였다.
- ⑤ 카롤루스 대제는 궁정 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간행하는 등 학문을 진흥시켰는데, 이를 ( )라고 한다.
- ⑥ 중세 서유럽의 ( )는 봉토를 매개로 주군과 봉신이 맺은 쌍무 계약 관계이다.
- ⑦ 주종 관계에서 봉신은 ( )에게 충성을 서약하고, 주군은 ( )에게 봉토를 수여하였다.
- ⑧ ( )은 노르만 왕조를 개창한 윌리엄이 정복지의 토지와 자원, 인구 등에 대해 실시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.

## 실전문제

### 01

밑줄 친 ㉠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?

[2016-9월 모의평가]

왕실의 내분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실질적인 권력이 궁재에게 넘어갔다.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재가 된 그는 실권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㉠ 왕위에 올랐다. 메로베우스 왕조의 힐데리히 3세는 장발이 잘린 채 수도원으로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다.

- ① 교황이 피핀을 지지하였다.
- ② 베르됭 조약으로 왕국이 분열되었다.
- ③ 카롤루스 대제가 정복지에 교회를 세웠다.
- ④ 이탈리아 일부 지역이 교황령으로 기증되었다.
- ⑤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티교로 개종하였다.

### 02

(가)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[2015-수능]

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재였던 할아버지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이슬람 군대를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에서 격퇴하였다. 아버지는 실권을 잃어버린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열었다.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나는

(가)

- ① 반달 왕국을 정복하였다.
- ②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.
- ③ 레히펠트 전투에서 마자르 족을 격퇴하였다.
- ④ 아헨이 궁정 학교를 세워 문예를 부흥시켰다.
- ⑤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둠즈데이 북을 제작하였다.

### 03

밑줄 친 '황제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[2017-6월 모의평가]



- ① 보름스 협약을 맺었다.
- ② 베르딩 조약을 체결하였다.
- ③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.
- ④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하였다.
- ⑤ 궁정 학교를 세워 문예를 부흥시켰다.

### 04

(가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2017-9월 모의평가]

게르만족의 분파인 (가)은/는 '북부 사람'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바이킹이라 불리기도 하였다. 원래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, 일찍부터 조선표 및 항해술을 발전시켜 바다를 거침없이 누볐다. 9세기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다.

- ① 키예프 공국을 멸망시켰다.
- ② 잉글랜드에 왕조를 개창하였다.
- ③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.
- ④ 텔로스 동맹을 통해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다.
- ⑤ 둔전병제와 군관구제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였다.

#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

## [중세 교회의 발전]

### 01.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장

#### 1) 배경

- 수도승들의 헌신적 봉사로 대중에 확산
- 교회 → 대토지 소유를 통한 세속적 권력 형성
- ★성직 계서제도(봉건적 주종 관계 형성)  
: 교황 → 대주교 → 주교 → 교구 성직자

#### ▶성상 숭배 금지령◀

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(재위 717 ~ 741)가 내렸는데, 정통의 수호를 명분으로 하였지만, 서로마 교회에 대한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.

#### 2) 과정

- 교구(敎區, Diocese) 형성  
: 로마 말기 5대[로마, 비잔티움, 안티오크, 예루살렘, 알렉산드리아] 교구  
↳ 7세기 이슬람 세력의 확대로 인해 2대[로마, 콘스탄티노폴리스] 교구로 축소
- 로마 교구 對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  
: ★성상 파괴령(726)으로 동·서 교회의 대립 격화  
: ★동서 교회의 분열(1054)[로마 가톨릭(로마 교황) 分 그리스 정교회(비잔티움 황제)]

#### 3) 왕권과 제휴

- 프랑크 왕국, 신성 로마 제국과 제휴하여 비잔티움 황제의 간섭에서 탈피  
: ★496(클로비스의 개종), 756(피핀의 교황령 기증), 800(카롤루스 대제 대관), 962(오토 대제 대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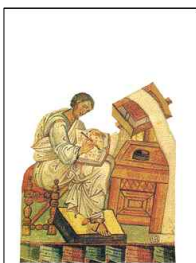
### 02. 로마 가톨릭의 개혁 운동

#### 1) 교회의 세속화

- 교회의 권력과 부(富) 상승, 유럽인의 일상생활 지배, 막대한 토지 소유
- 성직자 기강 붕괴, 성직자의 혼인,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 차지, 성직 매매

#### 2) 수도원 운동

- 교회의 세속화에 반발하여 원시 크리스트교의 정신으로 복귀하려는 운동이 조직화
- 6세기 몬테 카지노의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청빈·정결·복종 강조
- ★10세기 클뤼니 수도원(L'Abbaye de Cluny, 910년 설립) 중심으로 교회 정화 운동 전개



#### <수도원(monasterium) 생활>

- 기도와 노동의 공동생활 : 농업·수공업의 기술 향상
- 고전 필사 작업 : 고전의 보존·연구, 중세 학문·문화의 중심
- 엄격한 계율과 노동 중시 : 교회 세속화 방지, 교회 개혁의 주체
- 의료 시설과 사회 시설(부속학교) 운영 : 사회 공헌

#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

## [동·서 교회의 비교]

구분	서로미 교회	동로미 교회
종교	로마 가톨릭	그리스 정교회
공용어	라틴어	그리스어
문화권	게르만 족(서유럽) 전파 → 게르만 문화권	슬라브 족(동유럽) 전파 → 비잔티움 문화권
경제	장원제 발달, 자연 경제	상공업 발달, 동서 중계 무역으로 융성
정치	지방 분권적 봉건제, 정교분리	전제군주정, ★정교일치(황제 교황주의)



<카노사의 굴욕>

## [교황 對 황제]

### 01.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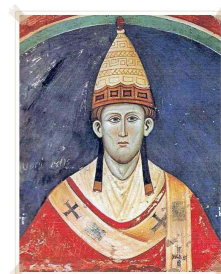
- 11세기 교황 주도로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탈피 시도
- ★성직자 서임권(= 주교 서임권) 분쟁

### 02. ★카노사의 굴욕(Humiliation at Canossa, 1077년)

- ★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(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 금지, 성직자 금혼 등, 1075)
- ★하인리히 4세(신성 로마 제국, 재위 1053 ~ 1105)의 반발 → 그레고리우스 7세의 황제 파문(1076)
- 황제가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하여 파문 해제(1077)

### 03. ★보름스 협약(1122년)

- 교속 서임권 투쟁의 일단락, 교황권의 신장
- :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5세(재위 1105 ~ 1125) ~ 교황 칼리스토스 2세(재위 1119 ~ 1124)
- 국왕이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차지
- : 성직자는 국왕의 봉신(vassal, 封臣)



### 04. 교황권의 전성기

- 십자군 전쟁(1096 ~ 1270)
- 교황 ★인노첸티우스 3세(재위 1198 ~ 1216, = 인노첸시오 3세)
- : 교황권의 절정
- : 프랑스 왕 굴복, ★제4차 십자군 전쟁(1202 ~ 1204) 단행, ★영국의 존 왕 파문(1209) · 폐위(1212)
- : ★교황은 해, 황제는 달(1198 ~ 1216)

## 중세 서유럽의 문화

### 01. 특징

- ★크리스트 교 중심의 문화로 자연과학과 기술 퇴보
- 보편적 통일 문화로 인한 민족적 색채 약화
- 관습을 존중하여 권위와 전통이 지배하는 문화

### 02. 학문의 발달

#### 1) 신학(神學)

- 모든 학문의 중심

#### 2) 철학은 신학의 보조 역할(★철학은 신학의 시녀)

- 교부(敎父) 철학(patristic philosophy)  
: 아우구스티누스(354 ~ 430), 『신국론』
- 스콜라 철학(Scholasticism)  
: 십자군 전쟁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  
: 토마스 아퀴나스(1225 ~ 1274)의 집대성[신학과 이성의 조화 중시, ★『신학대전』(1267)]

### 03. 교육

- 중세 초기에 교회, 수도원 중심의 학문 발달
- 12세기 이후 대학 발전  
: 라틴어 강의  
: 볼로냐 대학(학생 조합, 1158), 파리 대학(교수 조합, 1215)  
↳ 교회, 세속적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★자치적 운영



<피사 대성당>

### 04. 예술의 발달

#### 1) 교회와 수도원 건축 발달

- 4 ~ 8세기경 바실리카 양식(비잔티움 양식 모방)
- ★11세기 경 로마네스크 양식[두꺼운 벽과 돔 + 원형의 아치, ex) 피사 대성당(1063~)]
- ★12세기 경 고딕 양식[높은 첨탑 + 스테인드글라스(stained glass)]  
: 천국을 향한 중세 유럽인들의 염원 표현  
: 샤프트르 대성당(1145~), 노트르담 대성당(1163~), 쾰른 성당(1248)



<샤프트르 대성당>

#### 2) 문학

- 봉건 기사들의 생활상, 기사도 정신 반영
- 무훈과 충성을 읊은 기사도 이야기와 낭만적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
- 『롤랑의 노래(론세스바예스 전투)』, 『아서 왕 이야기』, 『니벨룽겐의 노래』